

# 위대한 생은 천만년 길이 빛나리

##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겨진 태양의 친필



오는 7월 7일은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6돛이 되는 날이다.

**《 김 일 성 1994. 7. 7. 》**

새기면 새길수록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위인의 거룩한 한생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안겨오는 글밭이다.

주체83(1994)년 7월 7일, 바로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를 마무리하시느라고 분초를 쫓아가며 정력적으로 사업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년로한 몸이심에도 한밤을 지새우며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역사적문건을 보시고 친필 존함으로 비준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에게 김일성동지에게 내가 문건을 비준했다고 보고하라고, 이래로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었다.

이 역사적문건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력사에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문건으로 되었다.

돌이켜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애국애족의 한평생,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 모든것을 다 바치신 무한한 애민헌신의 한평생이었다.

일찌기 조선이 해방되지 않았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대전의 날날 우등불가에서 그려보신 해방된 조국은 분열된 나라가 아니었다. 하나의 강토우에 존엄과 국력을 떨칠 인민의 나라였다.

하기에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혁명령도는 언제나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과 잇닿아 있었다.

어느해 4월 15일, 온 겨레와 인류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만시름을 놓고 편히

쉬셔야 할 뜻깊은 탄생일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조국통일문제에 마음쓰시었다. 수령님께서 는 오늘 한 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것은 통일된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을 누리려는 겨레의 념원을 풀어주시 못했것이라 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숙원인 동시에 민족앞에 다진 나의 맹세이기도 하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었다. 어느해 탄생일에도 일군들이 올리는 축배잔을 받으시고 민족의 절반을 남에 두고 이 잔을 들자니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며 쓰린 마음을 달래지 못하시었다.

진정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고 최대의 념원이었다.

조국통일에 대한 사망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통일운동의 메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정당하고 공명정대한 자주통일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반동일세력의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 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헌법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강국건설의 고귀한 밑천으로, 필승의 표대로 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었다.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선대기구인 범민련의 조직과 활동에도, 해마다 성대하게 개최되었던 범민족대회에도 조국통일을 위해 기울으신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있다. 설사 지난날 민족앞에 최를 지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구치고 민족과 통일을 위해 나서려는 사람들을 모두 풀어안아주시고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시어 어버이수령님의 그 따사롭고 넓은 품을 찾아 평양을 방문한 남조선사람들과 해외동포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그 거룩한 생애와 크나

큰 업적을 길이 전하며 겨레의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력사의 땅 관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친필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오늘도 관문점을 찾아 그 친필비앞에 서있느라면 어버이의 따듯한 정이 어려오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라는 간곡한 유언의 음성도 들려오는것 같아 눈시를 적시는 우리 겨레이다.

민족분열의 년flows는 어언 75돌기를 새겨가고있지만 통일된 강산에 살려는 겨레의 열망은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오늘 성스러운 조국통일 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들이 서계신다.

은 겨레는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바라시었고 우리 민족이 열망해는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거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시여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그리움속에 7월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다.

비범한 사상 리론적 지와 고매한 덕성, 불면 불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세우게 되었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성취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전 체 조선인민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불려일으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우리 겨레가 벌리는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휘날려주시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해방직후 외세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해 민족분열책동이 날로 우습하였던 엄혹한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력사적인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시고 온 겨레를 단합과 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이끄시었다.

그이께서는 1980년대말-1990년대초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었던 그때에도 온 민족의 대단결로 반통일광풍을 밀어내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때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이 나날에 온 겨레를 품에 안아 조국통일을 위한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민족애와 광복의 정치에 매혹되어 최덕신, 윤이상, 최홍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남남의 각계층 인사가 평양을 찾아왔으며 진정한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돛을 맞으며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열린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이 참가한

활동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동안 나는 민족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여왔다 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범민족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대회참가자들을 몸소 만나주시고 그들이 거둔 성과를 축하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싶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는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숙망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위업이며 통일운동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라고,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대표요들이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의 투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82(1993)년 4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문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귀한 한평생이 그대로 비껴있다.

청년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대단결위업실현에 쌓아올린 업적은 우리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다.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위업은 오늘 사상도 령도도 품도 수령님들 그대로인 경애하는 원수님들이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림없이 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앞으로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주체 105(2016)년 6월 29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들께서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 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이었다.

국가의 존엄과 영예, 위상은 나라를 이끄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공화국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울 드림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국력강화에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시었으며 국가정권 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삼고 인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인민의 이름을 가세주기 위해 서라편 억만금의 재부도 통째로

기울이도록 하시는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아래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공화국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위의 군력을 최대로 강화하신것은 나라와 인민앞에 쌓으신 영구불멸할 공적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들, 포연이 자욱한 전투훈련장들을 찾고찾으시며 병사들에게 백승의 지략과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시어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천리방선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에 무수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공화국의 국방공업은 그 어떤 최첨단무기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게 되였으며 인민군대에는 위력한 주체무기를 가진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있다.

자력갱생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가장 위력한 추동력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에만도 삼지연시 2단계공사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이 훌륭히 결속됨으로써 주체건축의 발전면모와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파시되었다.

그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졌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농업과 수산업, 파수업과 축산업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황금산, 황금벌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황금해의 새 력사가 창조되었다. 지난해와 올해에만도 대규모의 중형남새온실농장과 순천비료공장이 일떠서고 황해남도물길공사도 완공됨으로써 농업생산을 높일수 있는 맑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으며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힘있게 파시되고있다.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약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물샴없는 위 상방역조치가 취해지고 평양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건설되고있고있는것은 인민중재제주의 정지리념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뚜렷한 민족자존의 림장과 령활한 지략으로 국제정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공화국은 전례없이 높은 국제적위위를 지니고 자주권과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새 세계건설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회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따라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

본사기자 김철진

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한평생 애민헌신의 한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언이다.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받들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시고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윤락하고 문명하게 해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인민생활 문제때문에 심려하시며 국가적대책을 도취하여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무수히 일떠세워주시었다.

북방의 눈바람을 맞으시며 찾기도 찾으신 그이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에 의하여 백두산이 지척에서 바라보이는 삼지연시도 인민의 리상향, 산간문화도시로 전변되게 되었다.

북나무거리, 밀영거리, 청봉거리, 리명수거리, 못가거리, 배개봉거리에서 삼지연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지금 가슴뜨겁게 체험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양덕평과 건설을 령도하여온 진행 정에서 언제나 민족의 단합을 이끌어오신데 선차적인 힘을 닦아왔고, 화천에서 본사기자 박철남

《E.C》를 조직하고 혁명

평양의 문수지구에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하시려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따르시어 문수물놀이장건설을 받기하시고 수많은 형성안까지 보아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몸소 기방도안가가

포전길을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나라의 농사문제를 따름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따르시어 위해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속에 일떠세운 순천비료공장이 훌륭히 일떠서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대동강변의 명당자리에 평양종합병원의 위치도 정해주시고 몸소 착공에 나오시어 우리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 크게 건설되는것을 아시던 아마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었고 우리 인민들도 남녀노소모두가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첫삽을 뜨신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병원건설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 있다.

인기북

의서 학생용기방생산을 위한 수백 건의 도안도 보아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금산포켓갈라공공장을 일떠세워주시고는 30여년전 수령님의 교시를 오늘날에 와서 집행하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욱이 새겨진 곳이라면 그 어디건 찾아 받들어 평양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민헌신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가 생산되어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적극 도모하고있다.

죽음유거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죽음유거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